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모델 확대방안연구
- 메콩 유역 수력발전사업을 중심으로 -
Transfer of Korean Green Growth Cooperation Model
- Focus on Hydropower Industry in Mekong River Basin -

최승지,* 김진우,** 정다운***
Seung Ji Choi, Jin Woo Kim, Dawun Jung

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對 메콩지역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메콩 유역은 중국의 운남성 지방,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개발사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이 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메콩 5개국의 외교장관을 서울로 초청하여 회담을 개최하여 메콩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계 각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모델과,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접목시킨 물과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 및 무나싱해(Munasinghe)의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omics)가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對 메콩유역 협력 방안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지역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높은 수입 석유 의존율을 낮춰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이 이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홍수방재 효과, 전력 수출로 인한 소득 창출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금조달 방식, 외교적 접근, 기술적 접근, 제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對 메콩유역 한국형 물과 녹색성장 ODA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제시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점차 한국이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산업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녹색성장, 메콩 유역, 라오스, 수력발전산업

* 정회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E-mail : sj.choi0323@gmail.com
** 정회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E-mail: zardkjw@gmail.com
*** 정회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Email: i_am_dawun@gmail.com